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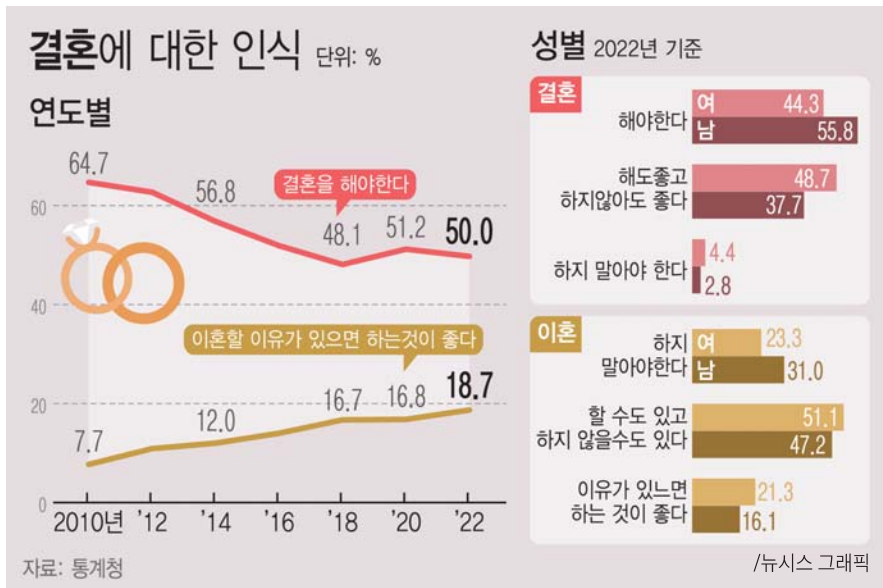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1~2인 가구 늘어 평균가구원 수 ↓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증가세
10가구 중 2가구는 ‘고령층’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10.1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2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결혼도, 자녀도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 수도권 내 주택 마련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0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지난 1979년부터 작성돼왔다.

2021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년 전보다 0.83명 감소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진 반



면,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부부와 미혼 자녀(43.3%), 부부(26.6%), 한부모와 미혼자녀(14.6%) 등의 순이었다. 2000년 이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

구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는 501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 가구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8%, 10 가구 중 2 가구는 고령층 가구라는 의미다.

결혼해야 한다는 국민들도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 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생각은 남자(55.8%)가 여자(44.3%)보다 많았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년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남녀 모두 2년 전보다 줄었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자(69.6%)가 여자(61.1%)보다 높았다.

이혼해야 한다는 비중은 18.7%로 2년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인구도 5163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 부채는 91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이었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RI)은 수도권 기준 10.1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1년 전보다 3.0%포인트 증가한 75.4%였다.

삶의 만족도는 여자(75.8%)가 남자(75.1%)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40대(79.3%)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0%)이 가장 낮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성심당·이성당’ 가루쌀 신제품 개발 박차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 지원사업’
유아용 쌀과자·빵·과자 연내 출시
가루쌀 ‘저당’·‘노화지연’ 연구 추진

성심당과 이성당 등 전국 2대 빵집을 포함해 식품업체 15곳이 가루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저당·노화지연 소재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식품업체 15개소와 제품 1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밥쌀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식량주권과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가 새로운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연구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6일~2월17일까지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총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 개발을 신청해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품 가공 및 식품 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가루쌀 원료 활용 가능성, 제품의 사업성, 업체의 제품개발역량 등을 고려해 업체와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 제품은 면류 4종, 빵류 5종, 과자류 7종, 기타 3종이다. 전국 2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로쏘)은 쉬폰케이크와 식빵을 개발하고, 이성당 빵집을



미들영농조합법인이 가루쌀로 만든 빵류 제품. /농식품부

운영하는 대두식품은 팔만주 개발에 나선다.

면류 개발에는 주요 식품업체인 농심(볶음사출면), 삼양식품(짜장라면)이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칼국수 전문 이가자연면도 가루쌀로 만든 칼국수를 선보인다. 최근 라면시장에 진출한 하림산업도 라면 신제품을 내놓는다.

영유아 이유식 업체로 알려진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영유아쌀빵을 만들기로 했다.

과자류 개발에는 농협경제지주(현미칩), 미들영농조합법인(몰드과자), 풀무원(고단백스낵), 해태제과(오에스), 호정식품(약과)이 참여한다. 국내 대표 제분회사인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을 제분해 이들 식품업체에 공급하고, 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개발에 나선다.

이들 식품업체는 연내 시제품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쌀 가공식품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루쌀 소

비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제품개발 사업과 별도로 가루쌀의 식품 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저당 쌀가루 이용기술(한국식품연구원 주관)’과 ‘쌀가루 노화 지연소재(전남대)’ 개발에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 5곳과 경희대, 가천대 등이 참여해 현장 맞춤형 기초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품개발지원 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원료인 가루쌀은 대규모로 건식 제분한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의 가루를 낼 수 있어 건식으로 대규모 제분이 가능해 환경친화적이며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체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진공, 친환경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 목표

‘2023년 ESG 기본계획’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3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ESG분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진공의 ESG 컨트롤 타워로서 지난해 3월 출범해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 연 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을 반영하고 기관의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한 중진공 ESG 전략체계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창출’을 ESG 비전으로 제시한 중진공은 ▲혁신을 통한 친환경 생태계 강화(E)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S)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경영 체계 확립(G)의 3대 전략목표에 따라 12개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2대전략과제는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 안전, 상생협력·동반성장, 반부패·윤리경영, 현장소통 등 기관 자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9개 전략과제와 ESG 역량·인식 제고, 탄소중립 지원,

친환경·녹색산업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3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작년 11월 첫 발행에 성공한 녹색채권의 발행을 정례화해 조달된 재원으로 저탄소 신산업 육성,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지원 선도기관으로서 글로벌 환경 규제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협력사 ESG 관리에 애로가 있는 모기업과 협업해 ESG 특화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과 심층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연계지원을 제공하여 ESG 경쟁력을 높인다.

중진공은 이날 확정된 ESG 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ESG 경영 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선도 플랫폼’으로서 ESG 경영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과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비계 삼겹살’… ‘과지방’ 검수 강화한다

농식품부, 지방함량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이 유통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지방함량 표시를 하게 하는 등 가공·유통 전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3일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위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농식품부, 배수개선 대상 128개 지구 선정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 설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개 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만1000ha)는 매년 침수피해

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